

톡톡

부산체육

December 2020 VOL.10



사람과 사람 ①

찬스가 아닌 찰나의 승부, 예(禮)를 중시하는 무예 고수!

정심검도관 8단 이승호 원로



사람과 사람 ②

한국 근대5종 황금시대를 연 철인 여전사!

BNK저축은행 근대5종 정민아 선수



뉴스 톡

-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스포츠 교류 업무 협약식 개최
- 부산 초등 · 중학교 우수선수 장학금 수여식
- 부산국민체육센터 박경배 센터장 퇴임식

스포츠 톡

변수의 조합, 그래서 인생! 하고재비만 모였다!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1위 '위드베이스볼' 야구동호회



스포츠 전국 투어 - 환상적인 질주의 도시, 평창



설원을 나는 스키어
환상적인 질주의 도시, 평창

교육 톡 - 스포츠 관련 직업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사람과 사람 ①



찬스가 아닌 찰나의 승부,
예(禮)를 중시하는 무예 고수!

 정심검도관 8단
이승호 원로

검도 인생 43년, 올해 71세로 정심검도관을 운영 중인 이승호 원로를 만났을 때 183cm 큰 키에 족히 20년은 젊어 보여서 내심 놀랐다. 찰나에 승부가 결정되는 무도(武道)인 검도, 수십 년간 고도의 집중력과 담력을 수련해온 덕분일까. 얼굴빛은 투명했고 깨끗한 허리에 힘 있는 눈빛, 강단 있는 어조가 인상적이던 이승호 원로. 2남 3녀 중 장남으로 운동보다는 공부 쪽으로 대성(大城)하길 바랐던 부모님 때문에 검도 입문(入門)은 꽤 늦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자 없다고 했던가. 그는 현재 부산광역시검도회 자문의원이자 대한검도회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33년째 정심검도관을 운영해 온 부산 검도계의 살아 있는 산증인이다.

돌고 돌아 결국 택한 건
검도, 만족스러운 삶

“어릴 때 참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부모님은 운동의 ‘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죠. 한번은 고집을 부린다면 문밖으로 내쫓기도 하셨어요. 그 시절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셨죠. 운동이나 미술, 음악이 직업인 이들을 ‘딴따라’라고 부르면서 굶어죽기 딱 좋다고 폄하하셨죠. 물론 지금은 세상이 확 변했지만요. 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잘해왔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축구며 야구, 핸드볼 했다 하면 두각을 드러낼 만큼 운동 감각이 남달랐던 이승호 원로, 검도와 인연은 고2로 거슬러 오른다. 부모님 몰래 오래도록 흠모해온 검도를 배우려고 찾아간 곳은 대한심도관, 알고 보니 정통 검도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유도, 검도, 태권도 등 기술을 배우는 곳이었다고. 군대에 다녀온 뒤 동아대학교 축산학과로 진학한 후로도 검도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그다. 그 당시 흔치 않던 검도장을 수소문해 찾아간 곳은 문현동 언덕바지에 위치한 부산대원관, 그 당시 부산에서 검도의 대가로 손꼽히던 도호문 선생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28세에 검도에 입문한 이 원로, 시작이 늦었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두세 배로 열심히 검도를 익힌 이 원로는 초단으로 시작해 8년 만인 36세에 5단을 뚫는다.

고도의 집중력,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

“37세에 정심관 도장을 개관했는데 집안 아저씨의 땅을 빌려 도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말도 없이 땅을 파셔서... 2년 뒤 본래 위치보다 약간 위쪽에 건물을 짓고 도장 문을 다시 열었죠. 처음 도장 문을 열었을 때는 제 은사인 도호문 선생님이 68세였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개관식을 못했고 2년 뒤 도장을 다시 열었을 때는 은사님이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셔서 개관식이 무산되었죠. 은사님이 돌아가신 와중에 개관식을 할 경황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고 도장을 운영하는 내내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더군요.”

이승호 원로를 무도의 길로 이끌어준 은사 도호문 선생의 부재는 오랜 시간 그에게 공허감을 안겨줬다.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터, 1985년부터 맡아온 부산광역시검도회 총무, 재무이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검도회 발전에 신경을 쏟았다. 2000년 들어 부산광역시검도회 부회장직을 4년, 감사직을 4년 맡았고 2019년까지 사하구검도회 회장에 이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검도회 공정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부산광역시검도회 자문의원과 대한검도회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33년째 정심검도관 관장을 맡아왔다.

“검도를 생각하면 정직함, 성실함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찰나에 승부가 나는 운동이고요. 보통 찬스에서 승부가 나지, 찰나에 승부가 나는 운동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대회에 나가서 지면 잠도 안 자고 왜 졌는지 분석했어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진 것을 분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었고요. 다음 시합에는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훈련에 더 집중했죠. 제 승부근성도 대단한 편인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과 포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①



다시 태어나듯
매일 새로워지는
삶의 시작, 검도

대한검도회 중앙심사는 봄,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리는데 대략 30명가량의 8단 응시자가 승단심사를 본다. 일 년에 합격자는 전국에서 2~4명 정도 나오고 아예 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68세가 되던 2017년, 열두 살이나 어린 상대 선수를 이기고 사범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8단을 따낸 이승호 원로, 현재 부산에 생존하는 검도인 중 8단은 4명가량이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자유분방했고 타고난 기질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뭔가를 자꾸 배우거나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이 원로, 50년 가까이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데다 봉사할 요량으로 사하문화원에서 아코디언을 배우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하경찰서 자율방범대장, 괴정1동 방위협의회 회장 등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앞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보다는 관계 맺고 익힌 것들을 끈끈하고 깊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검도를 훈련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생생히 느꼈다는 이승호 원로, 그날의 또렷한 기억과 그때의 희열 덕분에 43년 흔들림 없이 검도인의 길을 걸어온 게 아닐까 했다. 세상에 검도 고수는 많고 목계(木鷄)와 같은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겸양을 나타내는 이 원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고 도달하고픈 경지가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승호 원로에게 생은 검도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검도는 충만하게 차오르는 삶, 다시 태어나듯 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의 시작이었으니.



劍道



대한심도관에서 승단 기념으로 동료들과 함께




1983년 부관친선검도대회 참가차 부관페리호를 탄 이승호 원로 일행

사람과 사람 ②



한국 근대5종
황금시대를 연 철인 여전사!

 BNK저축은행 근대5종
정민아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5종 여전사로 불리는 정민아 선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배영이 주종목인 수영선수였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재학 시절 조보성 감독의 권유로 근대5종으로 전환, 수영과 육상에 강세를 보인 그녀는 나가는 대회마다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근대5종 단체전에서 금메달,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2019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근대5종 여자 역사상 첫 메달을 따는 등 화려한 메달 질주를 선보이며 운동선수의 삶을 탄탄히 구축해온 정민아 선수, 그녀를 만났다.

 근대5종은 내 운명,
운동선수로 빛을 발하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유년시절 수영을 했는데 유소년 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학교 대표에 뽑힐 정도였죠.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수영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순전히 제가 좋아서 택한 운동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힘들면 관두라는 애길 자주 하셨죠. 운동선수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부산체육고등학교 조보성 감독님의 권유로 근대5종으로 종목을 전환했는데 그 당시 여자선수가 전무했던 터라 선수육성 차원에서 바로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참 운이 좋은 편이었죠.”

근대5종으로 종목을 바꾼 뒤 정 선수가 처음 나간 대회는 2010년 4월 회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대회 개인전, 놀랍게도 여자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근대5종 선수로 전환한 뒤 내디딘 첫발은 순탄했다. 평소 훈련할 때 정 선수는 펜싱과 승마, 사격과 같은 기술 종목보다는 그녀가 강세를 보이는 수영과 육상 종목에 훈련 시간을 더 할애하는 편이라고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40분이면 시작되는 반복 훈련, 오전에는 수영과 승마 오후에는 펜싱과 육상 훈련이 이어진다. 훈련을 마치면 저녁 6시 가량, 매일 고강도의 훈련이 계속되다보니 주말만큼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온전한 ‘쉼’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근대5종 선수들은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훈련을 해요. 수영장, 승마장, 레이저런(육상과 사격) 경기장이 이곳에 다 모여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운 좋게 고3이 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지만 지금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려면 치열한 경쟁은 필수예요. 계속 수영선수로 남았다면 제 이름 석자 기억해주는 이 없었을 텐데 근대5종으로 전환한 뒤 운동선수로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대5종은 제게 운명과도 같죠.”



사람과 사람 ②



지나치리만큼 섬세한 몸 관리는 필수 요건

“2017년 8월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릴레이에 출전해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두 달도 채 쉬지 못하고 그해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죠. 훈련도 제대로 못한데다 복대를 하고 경기에 참가할 만큼 몸이 회복하지 못했던 터라 큰 기대도 없었어요. 가장 자신 없던 펜싱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40초 먼저 경기를 끝내면서 예상치도 못한 금메달을 땀긴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 땀이 기뻐지만 갈비뼈 부상으로 찾아온 슬럼프는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어요. 부상 이후로 페이스를 잃고 허우적대는 느낌이었을까. 아마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회에 참가해 후유증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의 경험치 덕분에 이후 과민하다 싶을 만큼 몸의 이상 신호에 집중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는 정민아 선수, 후배들에게도 들려주고픈 얘기가 많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참지 마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쉬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만큼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저도 가벼운 부상이라고 여기고 하루나 이틀 쉬면 좋아지겠지 싶어 훈련을 계속했는데 결국 보름 넘게 몸져누운 적도 있고요. 뭉치거나 결린 부위가 있으면 폼롤러로 근육을 풀어주고 셀프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죠. 운동선수에게는 몸이 재산인 셈인데, 내가 나를 잘 돌봐야죠.”

“앞으로 이루고픈 목표는 여자선수 3명으로 이뤄진 단체팀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5종 여자 최강팀으로 불리는 그날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철저한 몸 관리로 오랜 선수 생활 이어가길

정민아 선수보다 4살 위인 LH팀에 양수진 선수는 그녀의 롤모델. 근대5종 여자선수들의 은퇴 시기는 통상 20대 중후반이었는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온 양 선수의 올해 나이가 무려 33세라니 올해 29세인 정 선수에게 양 선수는 늘 모범답안으로 통했다. 양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선수생활을 길게 이어가고 싶다는 정 선수, 길게는 지도자의 삶도 계획 중이라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도 열심을 다해왔다.

“앞으로 이루고픈 목표는 전국체육대회 개인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여자선수 3명으로 이뤄진 단체팀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5종 여자 최강팀으로 불리는 그날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정민아 선수는 잘 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근대5종 여자선수로서의 삶이 길지 않음을. 그런 만큼 선수로 살아가는 오늘이 무척 귀하다.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오늘도 부단히 새벽잠을 떨치고 훈련장으로 향한다. 그 누구보다 다부지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스포츠 톡



변수의 조합,
그래서 인생!
하고재비만 모였다!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1위

‘위드베이스볼’ 야구동호회



던지고 치고 달리고 한 선수가 움직이면 다른 선수의 몸도 연동한다. 마치 다른 동작으로 동시에 춤을 추는 듯하다. 구도부산(球都釜山),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특히 많은 도시’라는 단어가 존재할 만큼 야구는 부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포츠다. 부산에 수백 개의 야구동호회 가운데 위드베이스볼은 2015년 창단, 2부에서만큼은 단연 선두자리를 지켜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에서 2위를 2019년 슈퍼컵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한 위드베이스볼, 흥미진진하고 매력 만점 스포츠에 빠진 이들은 오늘도 그라운드에 섰다.

5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
목표를 향한
집념이 일군 성과

“1부에 속하는 야구동호회 슈퍼스타즈에서 활동하던 회원 몇몇이 의기투합해 2015년 위드베이스볼을 창단한 걸로 알아요. 창단멤버인 이승재, 정현우, 김동욱, 신준현 회원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저희는 100여 개의 팀이 속한 부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야구연합회 O2리그 A클래스(2부) 정규리그에 참여하고 있죠. 매년 13게임 정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6승 3패로 4게임이 남았네요. 자랑할 만한 건 창단한 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2부에서만큼은 정상을 지켜온 셈이죠.”

이준호 감독은 2016년부터 위드베이스볼과 연을 맺고 올해부터 감독을 맡았다. 그의 포지션은 1루수, 현재 프로골프선수이기도 하다. 워낙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스포츠가 야구라서 자연스레 야구동호회에 눈길이 갔고 하고재비(무슨 일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어 한다는 뜻)들만 모였다는 위드베이스볼에 합류한 것. 삼삼오오 모여서 개인 연습을 하고 O2리그 정규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있는 경기에 참여한다.

일당백 회원들,
하고재비들의
불꽃 튀는 승부욕

2부에서 막강 팀으로 알려진 위드베이스볼은 2018년에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2위에 이어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에서는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슈퍼컵 대회는 2019년 10월 말에 시작해 11월 말까지 진행되었어요. 32강과 16강은 토, 일 시합을 했고 그 이후 시합은 일요일마다 진행되었죠. 매 경기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결승전이 제일 짜릿했어요. 봉봉라이더스 팀과 붙어 7대0으로 이겼는데 초반부터 경기가 잘 풀린 셈이죠. 다들 사회인이다 보니 프로선수들처럼 평상시 몸을 훈련해온 게 아니니까 경기하면서 다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자고 늘 얘기를 하는데 막상 경기에 나가면 승부욕이 발동되는 게 당연지사(當然之事)라... 최대한 부상 없이 조심하면서 경기를 즐기자고 강조한답니다.”

창단멤버인 신준현 회원이 경기 중 십자인대 파열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얘길 들려주는 최정환 회원, 그만큼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위드베이스볼의 하고재비들의 불꽃 튀는 승부욕은 누구도 막기 힘들다고. 그가 속한 야구 동호회만 해도 10여 곳이 넘는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그라운드를 찾는 건 식지 않은 야구 사랑 때문이다. 물론 과거 프로야구 선수였던 그의 지도를 바라는 동호회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할 테다.

“승패를 떠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복돋우면서 활력 에너지를 생성하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으로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잠시 내 안의 숨겨둔 열정에 빠지고 그 순간 얻은 힘으로 한 주를 보내는 게 아마추어 동호회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위드베이스볼은 앞으로 과정과 결과로 증명할 겁니다.”



With Baseball



스포츠 전국 투어



설원을 나는 스키어

환상적인 질주의 도시, 평창

❄️ 평창,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 구현하는 곳

강추위에 움츠려드는 여느 도시와는 달리 겨울이면 더욱 활기가 도는 강원도 평창은 겨울이 길고 강설량이 많아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감동을 선사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세계적인 도시로 떠오른 평창, 전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안긴 평창에서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에 남을 사진과 함께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뛰어난 설질과 편리한 첨단시설을 갖춘 평창의 리조트와 스키장에서 짜릿한 겨울 스포츠는 덤이다.

태백산맥 중앙의 평창은 평균 고도가 700m로 높고, 바람이 많이 분다. 옷을 넉넉히 겹쳐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자. 하얀 설경(雪景)의 평창이 당신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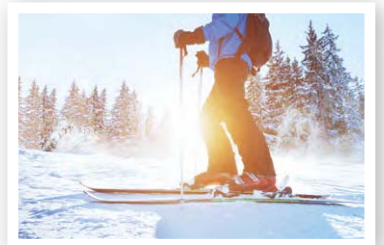
휘게(Hygge)란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말하는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겨울이 길고 곳은 날씨의 그들은 삶의 기쁨을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 편안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찾고 향수에 젖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평창만큼 휘게 라이프가 어울리는 곳도 없을 것이다.

Pyeongchang



❄️ 스키에 필요한 장비와 필히 알아두면 좋을 팁

새하얀 설원과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한 번이라도 스피드를 느껴 봤으면 헤어 나오기 힘든 스포츠는 바로 '스키'다. 길고 평평한 활면에 구두나 장화를 붙인 것을 신고 눈 위를 활주한다. 아직 한



번도 스키를 타보지 않았다면 올 겨울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스키장으로 떠나보자. 색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스키는 장비를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려면 올바른 장비 선택이 중요하다. 스키 장비에는 스키 플레이트, 부츠, 장갑, 고글 등이 있다. 먼저 스키 플레이트는 길면 길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짧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초보자라면 짧은 플레이트를, 상급 정도 수준의 스키어라면 자신의 신장보다 20cm 짧은 플레이트를 택하는 것이 좋다. 스키 플레이트만 큼이나 스키 부츠도 중요하다. 스키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 유형의 대부분이 다리 골절 등인데 스키 부츠가 안전사고로부터 절반 이상을 보호해준다. 부츠는 자신의 발에 잘 맞고 무겁지 않은 게 좋다. 자신의 발에 맞는 사이즈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츠를 신은 채 거울을 보고 똑바로 섰을 때 발가락이 앞 부츠 끝에 닿는다는 느낌이 왔다면 맞는 사이즈를 찾은 셈이다. 앞으로 몸을 굽힌 상태에서 발뒤꿈치와 부츠 뒤쪽으로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다. 이어 부츠가 발목을 잘 감싸고 있는지, 부드러운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스키복은 기온과 용도에 따라 맞춰 입어야 한다. 선수는 경기 종목별로 유니폼이 다르나 초보자와 일반 스키어는 지나치게 값비싼 복장을 피하고 실리적인 도움을 주는 복장이 좋겠다. 초보자는 많이 걷고 서 있는 시간이 길기에 특별히 여러 겹을 껴입는 방식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스키 장갑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좋다.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가능한 가죽 제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스키 고글도 반드시 껴야 한다. 설원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은 매우 강해 심하면 실명할 정도이기 때문에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 눈부시지 않은 날에 스키를 탈 때도 찬바람이 눈에 계속 닿기 때문에 보안용 고글은 반드시 필요하다.



SPORTS
NEWS

01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 교류 업무협약식 개최

체육단체 간 교류를
통해 부산체육 발전 및
선수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월 21일(월) 부산광역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변성완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및 양 단체 임원 관계자들이 참석 가운데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 · 협력함으로써 체육단체 간 교류를 통해 부산체육 발전 및 선수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탁구, 사격종목 등 선수단 훈련지도 및 합동 훈련, 전문 훈련장비 기증, 훈련장 사용 및 정보 교류 등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단체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선수단의 사회적 참여 증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나아가 전문체육뿐만이 아닌 장애인체육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선진 체육 문화와 과학화, 맞춤형 체육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상생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며 부산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스포츠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포츠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면서 “부산광역시는 두 체육회 간 스포츠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 톡



SPORTS NEWS

02

부산 초등·중학교 우수선수 장학금 수여식 및 축구·야구 운동부 경기용품 전달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6일(수) 오후 3시 부산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꿈나무 학생선수 체육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초등·중학교 우수선수 장학금 수여식 및 축구·야구 운동부 경기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우수선수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선수, 성적 우수선수 등 부산체육의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들로 22개 종목 100명(초등 37명, 중등 63명)의 학생선수에게 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축구·야구 운동부 용품지원은 부산도시가스의 후원으로 총 8,000만 원 상당의 경기용구를 축구 17개교(초등8개교, 중등 9개교), 야구 14개교(초등 5개교, 중등 9개교) 총 31개교에 축구공과 야구공·야구배트 등을 지원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프로리그 종목인 축구, 야구 운동부 경기용품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부산도시가스 구태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용품 및 장학금 지원이 선수들의 꿈과 희망에 밑거름이 되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부산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대표하는 진정한 체육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PORTS NEWS

03

부산국민체육센터 박경배 센터장 퇴임식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지난 12월 14일(월) 오전 11시에 부산국민체육센터 박경배 센터장의 퇴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퇴임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박경배 센터장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까지의 재직기간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사명감을 갖고 임했음을 보여줬다. 강인한 리더십으로 센터에 활력이 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부산국민체육센터 박경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앞으로도 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잘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 톡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스포츠 관련 직업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포츠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스포츠 관련학을 전공하려면 각종 운동 종목을 습득할 수 있는 운동 자질이 있어야 하며 훈련을 감당해낼 체력도 필요하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여가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급부상 중인 스포츠 관련 다양한 직업을 들여다본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해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취득 방법과 조건

-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 시험은 필기 - 실기 및 구술 - 연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필수(1) - 유아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위 과목 중 5개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유소년스포츠 지도사는 다른 생활/전문 스포츠지도사와 다르게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놀이의 형식으로 신체적 운동을 지도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유소년들은 연습·학습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방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기시험은 필수 과목으로 '유아체육론'을 포함한 5개 과목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필기시험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단일과목이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하게 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및 구술면접이 이루어지며 선택종목에 맞게 시험이 이루어진다. 실기시험은 각 종목에 맞춘 시험이 이루어지며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모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는 수도권, 경상, 충청, 전라, 강원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합격 후 3년 이내에 66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실습과정 역시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insport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경상도는 경상남도 창원외의 경남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미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보다 우울증 경험률이 높고 스트레스도 아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스포츠 활동은 이런 우울감, 스트레스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유소년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인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팀 스포츠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통해 타인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소년 성장기에 체육활동은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수요의 증가 속도에 비해 전문가의 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유소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한다면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전문가로서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